

# 靑 차관·수석비서관급 인선 주내 마무리

### 文대통령 최종 검토...외교·안보·경제 하마평 무성

### 기재부 1차관에 호남 출신 고형권·송인창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선을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뒤 청와대에 돌아와 차관급 인선안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늘, 내일 중 예정된 인사발표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차관급 인선은 인사검증 작업을 거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수석비서관급 인사도 조만간 매듭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검증이 끝나고 대통령이 ‘OK’하면 곧바로 발표할 것”이라며

“특별히 어느 부처를 먼저 하는 등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반도 안보위기와 정상회담 준비 등으로 인선이 시급한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관 인사는 이날 단행,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차관 등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외교부에서는 다자외교 전문가인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외교1차관에 양자외교에 정통한 조병재 주 말레이시아 대사를 기용하고, 외교2차관은 출신지역과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국장과

외교부 대변인을 거친 조 전 대사는 대선 캠프의 외교전문가인 ‘국민아그레망’ 간사로 활동했다.

국방차관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안보수석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정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호흡을 같이할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출 기재부 차관 자리를 놓고도 하마평이 무성하다.

현재 1차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와 이찬우 차관보와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이다. 고 이사는 30회, 이 차관보와 송 관리관은 둘 다 31회로 동이다. 고 이사는 기초실장

을 맡고 몇 달 전 ADB로 자리를 옮겼다. 이 차관보는 경제통이고, 송 관리관은 국제금융 전문가다. 이 차관보는 경남, 고 실장과 송 관리관은 호남 출신이다.

2차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박춘섭 예산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다. 최근에는 조규홍 재정관리관도 거론되고 있다. 박춘섭 실장은 행시 31회로 예산총괄과장과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지낸 대표적 예산통이다. 박 실장은 김 부총리 후보자와 같은 충북 출신이다. 노형욱 차장은 행시 30회로 재정관리관으로 기재부에 몸을 담았다. 전북 순창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장관급 후속인선의 경우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24~25일 인사청문 절차와 29일 또는 31일의 국회 인준표결 등을 마무리한 뒤 제정절차를 밟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장관급 후속인선의 경우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24~25일 인사청문 절차와 29일 또는 31일의 국회 인준표결 등을 마무리한 뒤 제정절차를 밟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장관급 후속인선의 경우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24~25일 인사청문 절차와 29일 또는 31일의 국회 인준표결 등을 마무리한 뒤 제정절차를 밟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추미에 “국민의당과 통합 관심 없다”

### 민주, 통합설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추미에 대표가 당·청 공조와 당내 혁신을 강조한데 이어 국민의당과의 통합설(說)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는 집권 초 당·청의 소통 체계를 단단히 구축하는 한편 정계개편 가능성을 최소화, 당 전열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청은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각오로 더욱 겸허하고 당당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며 “다시 처음이라는 각오로 중장기 집권전략을 위한 선도적 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추 대표는 당·청 간 교류 협력체계 및 실무 협력체계를 모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와대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한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책과제별 ‘의원책임제’를 도입해 국정책임을 분담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김민석 연구원장과 당내의 소통 채널이 가동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 나오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추 대표는 “아무런 관심과 의지,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우리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모든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선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추 대표는 지난 19일과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고 정국 구상을 위한 휴식에 들어갔다. 이날 최고위원회를 재개했다.

추 대표는 “아무런 관심과 의지,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우리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모든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선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추 대표는 지난 19일과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고 정국 구상을 위한 휴식에 들어갔다. 이날 최고위원회를 재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우원식 “전교조 재합법화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울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교조 합법화를 시켜야 한다는 건 훗날시위 때 많이 나온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그것을 새 정부

가 어떻게 감당할지, 또는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당과 원내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공동 발간한 ‘신정부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을 포함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 리더십 실종... 혼돈의 국민의당

### 박주선 카드 부상에 공동비대위원장론 제기

### 동교동계 추천 정대철 “생각없다”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당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리더십 부재로 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당장, 비대위원장 선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주승용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고사함에 따라 박주선 국회의장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될 위기다.

24일 당 지도부 일각에서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문병호 전 의원의 공동 비대위원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 부의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위기 국면이어서 비대위원장을 수용하려 했는데 느닷없는 공동 위원장론이 제기돼서 당혹스럽다”며 “이런 식으로 당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호남 4선인 박 부의장은 당내의 대표적 자강론자로 당내 중진들과 동교동계와의 관계도 원만해 대선 패배 이후, 당

을 추스를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대철 상임고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대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없으며 당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교동계 일부 인사들은 정 고문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장하며 탈당설을 흘려 당 내외에서 눈총을 받아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대철·권노갑 상임고문과 만나 당 리더십 재건을 위한 원로들의 협조와 양해를 구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8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비대위원장은 최대 3개월 정도 당을 이끌며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수습하면서 전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의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문제가 더 꼬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정수석 때 쓰던 원탁 재활용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참모들에게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에 나타난 현황을 설명하기 전 원탁 테이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민정수석 때 사용 후 보관중이던 것인데 다시 쓰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文대통령 “일자리 매일 점검”...집무실에 상황판 설치

### 18개 지표 실시간 업데이트...인터넷·모바일 공개 방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조작하면서 “오늘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실업률이 올해 4월 기준 11.2%에

달하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정도”라며 “지금의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이유라서 청년들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배석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전략이자 양극화 해소 정책이며,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위

원회를 설치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벌써 상황판까지 만들어주셨으니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며 “할 수 없다. 속도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달프더라도 바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상황판의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상황판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은 높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일자리의 양과 질을 대표하는 일자리지표 14개,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됐다.

일자리 상황판은 두 개의 화면으로 구성됐는데 일자리 상황을 보여주는 메인 화면에서는 18개 지표별로 현재 상황, 장기적 추이, 국제 비교 등을 할 수 있으며 각 지표의 분야별·지역별·연령별·성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청와대는 향후 고용 관련 전산망과 연계해 각종 지표가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

###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NPL 투자(부실채권) 실전강좌 모집

▶접수기간 : 2017. 5. 18 ~ 2017. 5. 26

▶자 격 : 본인이 직접 · 간접 투자 하면서 배우실 분

▶수업기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30일 속성코스(실전전문) 2017. 6. 3 ~ 2017. 7. 2

▶인 원 : 선착순 10명

▶비 용 : 100,000원

##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